



세계로 통하는 문화한마당

 보 도 자 료	<p>■ 국립중앙박물관 2016 - 47</p> <p>■ 국립중앙박물관 전시과 백승미 학예연구사 TEL 02-2077-9265 smbaik@korea.kr</p>
	<p>■ 2016. 7. 1 배포</p> <p>■ 붙임 : 사진자료 있음</p> <p>■ 총 5쪽</p> <div data-bbox="1216 510 1426 591">  문화로 활짝 웃다 </div>

2천년 동안 잠들어 있던 찬란한 황금문화를 만나다

‘아프가니스탄의 황금문화’ 특별전

- 일시/장소: 2016. 7.5.(화)~2016. 9.4.(일)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특별전시실
2016.9.27.(화)~2016.11.27.(일)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시실
- 전 시 작 품: 국립아프가니스탄박물관 소장품 231건 1412점
- 전 시 주 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국립아프가니스탄박물관
- 전 시 관 랐: 무료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영훈)은 특별전 <아프가니스탄의 황금문화>를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국립아프가니스탄박물관의 소장품 231건을 중심으로 고대 아프가니스탄의 역사와 문화를 국내 최초로 소개하는 전시이다. 7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며, 9월 27일부터 11월 27일까지 국립경주박물관으로 이어진다.

이란 고원 동북단에 위치한 아프가니스탄은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 파키스탄 등에 둘러싸인 내륙 국가이다. 지형적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한가운데 위치한 이 지역은 서쪽의 유럽, 동쪽의 중국, 남쪽의 인도를 연결하는 문명의 교차로이자, 실크로드의 요충지였다. 토착적

요소와 외래적 요소가 상호 융합하여 탄생한 아프가니스탄의 고대 문화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 지역의 문화 연구에도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크게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테페 푸룰, 아이 하눔, 킬리야 테페, 베그람 등 네 곳의 유적지를 시기별 흐름에 따라 조망한다.

1부에서는 기원전 2천년 경 청동기시대 유적인 테페 푸룰을 소개한다. 해발고도 3천 미터가 넘는 험준한 산에 둘러싸인 이 지역은 비옥한 경작지이자, 청금석의 주요 교역지로 큰 번영을 누렸던 곳이다. 1966년 지역민이 우연히 발견한 금은기로 유적의 실체가 밝혀졌는데, 상당량이 소실되어 출토지 정보가 부족한 편이다. 현재 출토된 황금잔의 기하학 무늬나 동물의 표현 등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나 인더스 문명과의 교류를 짐작해 볼 수 있다.

2부에서는 기원전 4세기 마케도니아의 군주 알렉산드로스의 동방원정 이후 세워진 아이 하눔 유적을 소개한다. 옥수스 강(오늘날 아무다리야 강) 유역에 위치한 이 도시 유적에서는 신전, 궁전, 경기장, 도서관, 반원형 극장 등 그리스 도시의 전형적인 요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 문자나 신화의 내용도 고스란히 발견되었다. 인도에서의 전래품도 발견되어 이 지역의 국제성을 엿보게 한다. 건축에서는 페르시아적 요소가 사용되는 등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를 혼합한 헬레니즘 문화의 특징을 보여준다.

3부에서는 ‘황금의 언덕’이란 뜻의 킬리야 테페 유적과 그 발굴품을 소개한다. 1978년 소련의 고고학자 빅토르 사리아니디(Viktor Sarianidi)의 발굴로 세상에 드러난 이 유적은 이집트의 투탕카멘 발견에 버금가는 중요한 성과로 주목받았다. 킬리야 테페 유적에서는 기원후 1세기경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5기의 여성 무덤과 1기의 남성 무덤이 발견되었다. ‘박트리아의 황금’이라 불리는 화려한 금제 부장품들은 당시 유라시아의 중심에서 활약했던 유목민들의 광범위한 교역 활동을 보여준다. 이들의 국제적이고, 다양한 문화에는 그리스, 로마, 중국, 인도, 스키타아-시베리아 등 매우 폭 넓은 문화적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 특히 6호묘에서 발굴된 ‘금관’은 신라 금관의 기원 등에 대한 연구 자료로서, 우리나라 학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4부에서는 쿠산 왕조의 여름 수도로 번영했던 베그람 유적을 소개한다. 베그람은 7세기 중국의 승려 현장이 기록한 ‘카피시국’의 도움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1세기경으로 추정되는 궁전터에서 많은 양의 유리기, 청동기, 석고, 칠기 등 다채로운 문화유산이 출토되었는데, 각각 인도, 로마, 그리스, 이집트, 중국 등의 영향을 보여준다. 실크로드와 해상무역으로 번영했던 도시의 모습에서 활발했던 동서 문물 교류의 상황을 살펴볼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전은 2006년 파리의 기메박물관을 시작으로 워싱턴의 내셔널 갤러리, 뉴욕의 메트로폴리탄박물관, 런던의 영국박물관 등 지금까지 11개국 18번째 기관에서 전시를 이어왔다. 한국은 개최 12번째 국가로, 특히 올해는 순회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도록에는 한국 문화와의 연관성을 살피는 다양한 칼럼을 수록하여 전시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이번 전시 마지막 공간에는 유네스코 아프가니스탄지부와의 협조로 특별사진전 “아프가니스탄의 자부심<The Afghanistan we are proud of>”의 출품작을 소개하여 아프가니스탄의 과거, 현재, 미래를 거시적으로 조망하는 공간을 마련했다.

발굴하기까지 2천년 가까운 세월동안 잠들어 있던 황금 보물 이야기, 보물을 지키기 위해 비밀리에 열쇠를 간직해 온 ‘열쇠지기’의 이야기. 이번 전시는 고대 아프가니스탄의 역사와 문화를 다양한 이야기 속에서 새롭게 담아내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전시와 연계한 특별강연으로 7월 21일(목), 대강당에서 민병훈 전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부장의 “출토 유물로 본 아프가니스탄과 고대 한국문화”를 마련했다. 전시해설은 주중 4회 (오전10, 11시, 오후 2, 3시), 주말 2회(오전 10시, 오후 2시) 진행한다.



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자료와 내용을 원하시면
국립중앙박물관 문화교류홍보과 담당자
백승미 학예연구사(02-2077-92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테페 플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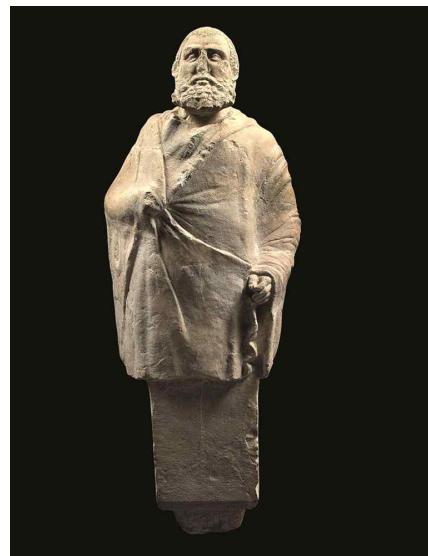


<기하학 무늬 잔>,
기원전 2200년~기원전 1900년경, 금,
테페 플롤 출토

<아이 하눔>



<키벨레 여신이 있는 둥근 판>,
기원전 3세기, 은, 금 도금,
아이 하눔 출토



<헤르메스 기둥>,
기원전 2세기, 석재,
아이 하눔 출토

<틸리야 테페>



<용 · 인물 무늬 드리개>, 1세기, 금, 틸리야 테페 2호분 출토



<금관>, 1세기, 금, 틸리야 테페 6호분 출토

<베그람>



<마카라 위에 서 있는 여신>, 1세기, 상아, 베그람 출토